

성별	남	나이	59세	직종	정비공	직업관련성	낮음
----	---	----	-----	----	-----	-------	----

1. 개요

김○○은 1985년에 운수업체인 객화차사무소에 입사하여 1992년 3월부터 차륜삭정기의 기계취급자로 근무를 하였다. 18년간 동일한 작업을 수행하였다. 2007년 10월 어지러움을 동반한 난청을 진단 받았다.

2. 작업환경

근로자 김○○의 회사인 차량사업소의 주요업무는 철도동력차의 유지보수 업무와 그 유지 보수 설비에 대한 유지 보수 업무를 하고 있다. 하루 평균 검수량은 디젤전기기관차 일상 검수 38량, 정기 검수 1.46량이고, 전기기관차는 2일에 검수 4.22량, 정기 검수 0.93량 시행하고 있다. 김○○은 해양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항해사로 약 30개월 일을 했었고, 그 이후 사업을 하였고, 34세(1985년)에 운수업체인 객화차사무소에 검수수로 입사하였다. 근무 시 주요 소음원은 차륜 삭정작업이다. 삭정작업은 기차바퀴가 선로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바퀴를 일정 두께로 유지해야 하는데, 그 두께를 유지하기 위해서 차륜 삭정기로 바퀴를 깎는 것이다. 차륜 작업시 작업환경측정 결과(배경 소음: 101.1dB(A) - 근로자 위치: 109.2dB(A), 차륜삭정 작업시 작업환경측정 결과(배경소음: 105.2dB(A) - 근로자 위치: 111.5dB(A)이다. 1992년부터 삭정반 현장 근무를 하면서 소음에 노출되었는데 하루 4축 삭정 작업 8시간 94dB(A)의 소음에 노출이 된다고 할 수 있다.

3. 의학적 소견

김○○은 당뇨 외에 기타 질병은 없었다. 2007년 10월 어지러움과 왼쪽 귀

의 풍만감으로 C병원에서 진료를 보았으며 우측 기도/골도 (45/31)dB HL로 측정되었으며 “이명을 동반한 우측 돌발성 난청”진단 하에 입원치료를 하였다. 2008년 12월 D병원 청력 검사를 시행하였다. 우측 청력 역치가 90dBHL 정도로 감소되었다. 2010년 1월, 7월 C병원에서 청력 검사를 각각 시행한 결과 (1월: 우측 45/31, 좌측 24/13 - 7월: 우측 48/45, 좌측 18/15 dBHL)이었다.

4. 결론

김○○의 감각신경성 난청은

- 소음 측정결과 85dB(A)이상의 소음에 노출된다고 판단되며,
- 18년간 노출된 점을 고려할 때 전형적인 소음사업장에 준하여 판단이 가능하며, 2008년 당시 난청은 별개의 질환이며, 현재의 난청은 직업적 연관으로 보아야 하며,
- 소음과 관련성이 명확하지 않은 질병(전정신경염)과 소음 노출이 함께 작용해서 난청을 발생시켰을 것이므로 소음이 단일한 원인은 아니나 악화시킬수 있으며,
- 순음청력 검사상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과거력상 청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병력이 없으며, 작업시간은 하루 한량 4축, 95dB(A) 이상의 소음에 4시간 이상 노출되었으므로 업무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다.